언어 영역

1. ①	2. ③	3. ④	4. ①	5. ②
6. ③	7. ④	8. ②	9. ⑤	10. ①
11. ①	12. ②	13. ②	14. ④	15. ①
16. ③	17. ④	18. ②	19. ②	20. ②
21. ⑤	22. ③	23. ①	24. ④	25. ②
26. ⑤	27. ①	28. ②	29. ⑤	30. ⑤
31. ①	32. ③	33. ⑤	34. ③	35. ①
36. ②	37. ④	38. ④	39. ⑤	40. ⑤
41. ①	42. ③	43. ③	44. ④	45. ③
46. ③	47. ④	48. ①	49. ③	50. ④

1. 맞고 자연스러운 문장 이해 정답 ①

①은 어법상으로 틀린 부분이 없고 표현도 자연스러운 문장이다. 주어 부분인 '그의 이번 ~ 얻을 것은'과 서술어 부분인 '뻔한 일이다'가 적절하게 호응을 이루고 있다.

② 서술어 부분의 '곳이다'를 감안할 때, '진리의 탐구'를 '진리를 탐구하고'로 표현해야 한다.

③ '눈맵시'라는 단어의 사용이 적절하지 않다. '눈맵시'는 '눈의 생긴 모양새', 즉 '눈매'를 뜻하는 말이다. 문장의 내용으로 볼 때, '한두 번 보고도 곧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재치'라는 의미를 지닌 '눈썰미'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④ 문장 끝부분의 '설계했다'는, 그 앞부분의 '사색에 잠기기도 하고'의 형식과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설계하기도 했다'의 형태로 표현해야 한다.

⑤ 문장 전체의 주어가 '내가 강조하는 것은'이므로, 서술어는 '(민족 사회의) 보물이라는 것이다'의 형태가 되어야 한다.

2. 어휘의 생성 원리 이해와 적용 정답 ③

<보기>의 '나팔꽃'이라는 단어는 '나팔 같은 꽃'에서 알 수 있듯이, 속성(모양)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형성된 합성어이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진 단어들끼리 묶인 것은 ③이다. '도둑심보'는 '도둑 같은 심보', '띠구름'은 '띠 같은 구름', '소걸음'은 '소 같은 구름, '실고추'는 '실 같은 고추'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이 단어들 역시 속성(모양)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합성어라고 할 수 있다.

② '나무배'는 '나무로 만든 배'라는 의미이므로, 그 사물의 재료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합성어라 할 수 있다.

3. 한글 맞춤법의 이해와 사용 정답 ④

(라)의 '겉껍질'은 '겉을 싸고 있는 껍질'을 가리키는 말로, '겉'과 '껍질'이라는 말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합성어이다. 즉, 두 개의 명사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하나의 단어(합성어)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① (가)에서 '찢는 데'의 '데'는 의존명사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② '피'와 '물'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말은,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이고 뒷말의 첫소리 'ㅁ'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므로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어야 한다(핏물). ← 한글 맞춤법 규정 제30항

③ (다)의 '굵은 파'는 문장에서의 의미로 볼 때, '대파'의 의미로 쓰인 합성어에 해당하므로 붙여 써야 한다.

⑤ (마)의 '깍둑썰기'는 '무나 당근 따위의 채소를 깍두기처럼 직(정)육면체로 써는 방법'을 뜻하는 하나의 단어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4. 글다듬기의 적절성 판단 정답 ①

대학에 입학하려는 학생이 자기 소개서를 쓰면서, 자신의 진로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는 사항을 굳이 부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것을 급변하는 정보 사회의 보편적인 상황으로 연결시키는 것도 무리가 있으므로 ①의 지적은 타당하지 않다.

② 대학을 입학하려는 학생의 자기 소개서이므로, 지원하는 대학을 선택한 이유와 학과 공부와 관련된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③ 두 번째 문단에 학교 공부 외의 활동과 관련된 내용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그런 활동을 하면서 얻은 느낌과 교훈을 언급하면 더욱 충실한 자기 소개서가 될 것이다.

④ 자신의 성장 과정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성격과 관련된 사항을 보충해야 한다는 지적이므로 적절하다.

⑤ 자기 소개서의 도입 부분에서 참신하게 글을 시작하면 독창성 측면에서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을 것이다.

5. 높임 표현의 타당성 파악 정답 ②

②의 문장에서 높여야 할 대상은 '할아버지'이다. 그런데 서술어를 '부러지셨어요'처럼 표현하면 불필요하게 '지팡이'를 높이는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 '부러졌어요'

① '언짢다'의 주체인 '어머니'를 높이는 표현이므로 적절하다.

③ '국어 선생님'을 높여야 하므로, '있다'의 높임 표현에 해당하는 '계시다'의 활용형을 쓴 것이다.

④ 문맥상으로 볼 때, '먹다'의 높임 표현에 해당하는 '잡수시다'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다.

⑤ '옥희 아버지'를 높여야 하므로, '아프다'의 높임 표현에 해당하는 '편찮으시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다.

6. 속담의 의미 이해와 사용 정답 ③

③의 '구운 게도 다리를 떼고 먹어라'는 불에 구운 게라 할지라도 혹시 살아나서 물지 모른다는 뜻에서 온 말로, 확실한

일일지라도 방심하지 말고 조심해야 한다는 뜻으로 쓰이는 말이다. 그리고 '돌다리도 두드려 건넌다'는 무슨 일이든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의미로 쓰이는 말이다. 이렇게 볼 때, ③의 두 속담은 비슷한 의미로 쓰이는 말이라 할 수 있다.

① '빛 좋은 개살구'는 보기에는 그럴듯하나 실속이 없는 것을 이르는 말이고, '개살구도 맛 들일 탓'은 (시고 떫은 개살구도 자꾸 맛을 들이면 그런대로 먹을 수 있게 된다는 뜻에서) 모든 일은 자기가 하기 나름이라는 말이다.

⑤ '말 안 하면 귀신도 모른다'는 무슨 일이든지 말로 표현해야 알 수 있다는 뜻으로 쓰이는 말인데, 어떤 사항에 대하여 발설하지 않으면(말조심을 하면) 귀신도 모르게 넘어갈 수 있다는 뜻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두 번째의 뜻으로 쓰일 경우, '고기는 씹어야 맛이고, 말은 해야 맛이다'라는 속담과 반대의 의미라고 할 수 있다.

7. 전개 과정에 적절한 내용 추론 정답 ④

쓰고자 하는 글의 주제는 '사회 통합을 위한 언어 정책 마련'이다. 그런데 ④의 경우는 새터민의 심리적 부적응과 생활상의 문제와 관련된 내용이므로, 쓰려는 글의 주제나 사회 통합을 위한 언어 정책과 관련된 문제 해결 방안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8~9] 지문 해제

사라져 가는 순수한 국어 단어들

전반부에서 1920~30년대 우리나라 작가들의 어휘는 자못 풍부했다고 언급하면서, 그들의 작품에 구체적으로 등장하는 단어의 예를 제시하고 있다. 후반부에서는 국어의 어휘는 우리 민족이 소중히 간직했다가 후손에 물려줌으로써 그 생명력을 보존해 온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러한 국어 어휘들이 우리 세대에 와서 사라져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8. 문맥적 상황을 통한 어휘의 의미 이해 정답 ②

(2)의 문맥적 상황으로 볼 때, 밑줄 친 '켯속'은 '어떤 일의 갈피, 혹은 일이 되어 가는 속사정'이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②의 설명 내용은 '그의 애를 조리게 하는 ~'이라는 문맥적 상황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① '영화가 늦기 때문에 ~'라는 문맥적 상황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내용이다.

③ '소세를 마치고'라는 어구를 감안할 때, 문맥적으로 연결되는 내용이다. '소세'는 '머리를 빗고 세수를 함'이라는 뜻으로, 보통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를 하기 전에 하는 일이다.

④ '내 정식으로 월급을'이라는 문맥적 상황과 어울린다.

⑤ '끝까지 치워 주고'라는 문맥적 상황과 적절하게 어울린다.

9. 정보 및 입장을 반영한 표현 이해 정답 ⑤

<보기>의 세 번째 조건에서, 글쓴이의 주장을 담아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본문에 담겨 있는 글쓴이의 주장은 사라져 가고 있는 순수한 국어 단어들을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글쓴이의 주장을 가장 적절하게 담아내면서 <보기>의 나머지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표현은 ⑤이다.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한 '거레, 켯속, 잔입, 나우, 구듭'의 예를 적절히 사용하였으며, 그 내용을 보면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여 거부감이 없도록 표현하고 있다.

①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내용이므로,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했다고 보기 어렵다.

② '이 말을 모르신다구요? 당신은 한국인이 아니로군요.'는 거부감을 줄 수 있는 표현이며, 글쓴이의 주장을 반영한 내용으로 볼 수도 없다.

③, ④ 본문에 들어 있는 글쓴이의 핵심 주장을 적절하게 반영한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

[10~11] 지문 해제

고려를 세운 태조 왕건의 취임사를 가상하여 만든 글

신라 말기의 혼란과 분열을 청산하고 고려를 건국한 태조 왕건의 취임사를 가상하여 만든 글이다. 우선 전반부에서, 고려의 건국이 가지는 의미는 혼란과 분열의 시대가 가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어서 겨레가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신라 시대의 골품 제도를 폐지할 것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후반부에서는 기존의 귀족 계층과 지방 호족 세력에게 새로운 사회의 질서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10. 중심 내용 및 논지의 이해 정답 ①

밑줄 친 '새로운 시대' 다음에 이어지는 문단의 중심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신라는 삼국 통일 이후 새로 편입된 고구려와 백제의 땅과 백성들을 한 나라 한 겨레로 묶기 위하여 노력했어야 하며, 백성들의 삶의 안정을 위한 사회 체계의 수립도 필요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는 사회의 통합과 기존 사회 체계의 개혁을 염두에 둔 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입장을 바탕으로 글의 중반부 이후에서, 이제부터 명실상부한 겨레의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라 사회의 골품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과거에 비해 보다 개방적이고 평등한 신분 질서를 지향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태조 왕건의 취임사에 드러난 새로운 시대의 이념으로는 ①의 '개혁과 통합'이 가장 적절하다.

11. 관점의 이해 및 구체적 적용 정답 ①

본문 중간 부분의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정 귀족만이 권력과 부를 독점하는 폐쇄적인 신분 제도를 유지하여 온'

현실을 언급하면서 '지방 호족들의 할거'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후반부에서, 새로운 질서가 기존의 귀족 계층이나 지방의 호족들에게는 다소 낯설고 불편한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새로운 사회의 질서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감안할 때, 태조 왕건은 귀족 계층이나 지방의 호족 세력을 견제하고 약화시키는 정책을 취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정책이 ①이다.

[12~15] 해제

훈민정음 창제에 대한 찬반 논쟁

(가) 훈민정음 창제에 대한 반대 : 언문을 만드는 것은 중국을 버리고 스스로 오랑캐가 되는 것이다.

(나) 훈민정음 창제 반대에 대한 반박 : 설총이 이두를 제작한 본뜻은 백성을 편리하게 하려는 데 있다. 언문 역시 백성을 편리하게 하려는 것이다.

(다) 훈민정음 창제에 대한 반대(반박에 대한 재반론) : 이두를 쓰는 자라도 문자(한자)에 의거하여야 능히 의사가 통하고, 이두로 인하여 문자를 알게 된다. 임시방편으로 언문을 쉽게 배우게 되면, 학문을 궁리하는 데 소홀하게 될 것이다.

12. 정보 및 논지의 분석적 이해 정답 ②

(나)에서는 설총이 이두를 제작한 본뜻은 백성을 편리하게 하려는 데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언문 역시 백성을 편리하게 하려는 취지에서 만든 것임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끝부분에서, 동일한 취지인데 이두는 옳다 하면서 언문은 그르다고 하는 까닭은 무엇이냐고 반문하고 있다. 이는 이두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이므로, 설총의 이두 제작을 반대하고 있다는 ②는 적절하지 않다.

① '이제 따로 언문을 만드신 것은, ~ 이적과 같아지려 하는 것'이라는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여기서 '이적(夷狄)'은 '오랑캐'를 뜻하는 말이다.

③ (나)에서 이두와 언문(한글)의 편리함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그 둘의 기능적 유사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다)의 전반부에서 이두는 문자(한자)를 알게 된 연후에 쓰는 것이고, 언문은 우리나라가 원래부터 문자(한자)를 알지 못했을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둘 사이의 차이점을 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⑤ '이두로 인하여 문자를 알게 된 자가 많사옵니다.'라는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13. 논지에 부합하는 사례의 적용 정답 ②

㉠은 중국의 문물이나 문화를 통해 오랑캐를 변화시킨다는 의미로 언급한 말이다. 즉, 주변의 문화나 문물이 새로운 문화의 형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게 된 것을 염두에 둔 말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부합하는 사례에 해당하는 것은 ②로, 그리스의 알파벳이 로마 문자의 형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경우이다.

14. 의미가 통하는 한자 성어의 이해 정답 ④

㉠의 '임시방편(臨時方便)'은 뜻밖에 생긴 일을 우선 임시로 둘러맞춰서 해결하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이와 유사한 의미로 쓰일 수 있는 것은 ④의 '동족방뇨(凍足放尿)'로, 이는 '언 발에 오줌 누기 → 한때 도움이 될 뿐 곧 효력이 없어져 더 나쁘게 되는 일'을 이르는 말이다.

① 뜻은 크고 안목은 높으나 재주가 없어서 이루지 못함.

② 길이 여러 군데로 막힘없이 통함.

③ 무슨 일의 시비를 따지느라고 말로 옥신각신함.

⑤ (말이나 글을 사용하지 않고도) 마음에서 마음으로 서로 뜻을 전함.

15. 대상에 대한 관점의 차이 변별 정답 ①

(나)에서는, 설총의 이두나 언문을 제작한 근본 취지는 백성을 편리하게 하려는 데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결국 문자를 바라보는 (나)의 입장은 '편의성'이라 할 수 있다. (다)에서는 언문을 쉽게 배우고 익혀서 사용하게 되면 성리(性理)의 학문을 궁리하는 데 소홀함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문자를 '학문 궁리'의 차원에서 바라보는 입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문자를 바라보는 (나)와 (다)의 시각 차이를 바르게 지적한 것은 ①이다.

[16~19] 지문 해제

순차성을 거스르는 애너그램과 영상 속의 시간

일상의 언어가 의미를 가지려면 마치 실에 염주알을 꿰듯이 철자를 순차적으로 읽어야 한다. 하지만 애너그램은 선조성의 원리를 정면으로 거스르며 선처럼 흐르는 시간을 거부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문단에서 오늘날 시간은 가역적으로 되었다고 언급하면서, 영화나 텔레비전 방송 속에서 시간은 미래에서 과거로 얼마든지 거꾸로 흐른다고 설명하고 있다.

16. 세부 정보의 분석적 이해 정답 ③

자의성(恣意性)은 소쉬르가 선조성(線條性)과 함께 언어의 특성으로 지적한 속성이다. 중간 부분에서 애너그램은 선조성의 원리를 거스르며 선처럼 흐르는 시간을 거부한다고 언급하면서, 소쉬르는 일상 언어의 질서를 거부하는 애너그램의 특성을 시어의 특성으로 설명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언어의 자의성을 애너그램이 지니고 있는 시어적 특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라는 단서는 나타나지 않으므로 ③은 적절하지 않다. 자의성은 언어에 있어서 소리와 의미의 관계가 임의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성을 말한다.

① '네오(neo)'는 구세주를 의미하는 '유일함(one)'의 철자를 바꾸어 놓은 이름이라는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② '놓쳐 버린 텔레비전 방송을 인터넷 위에서 다시 불러 낼 때, 시간은 마우스로 클릭하는 공간으로 바뀐다.'는 마지막 문장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④ '선조성(線條性)'은 중간 부분의 '언어가 의미를 가지려면 마치 실에 염주알을 꿰듯이 철자를 순차적으로 읽어야 한다는 것'과 관련된 특성이다. 연극의 시간 역시 가역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서로 비슷하다.

⑤ 마지막 문단에서 '연극의 시간과 달리, 영화 속의 시간은 미래에서 과거로 얼마든지 거꾸로 흐른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 둘은 선조성의 원리를 거스르며 선처럼 흐르는 시간을 거부하는 애너그램의 속성을 지니느냐의 여부에 의해 구분할 수 있다.

17. 이해를 통한 이유 추론 정답 ④

박물관장이 죽임을 당하기 전에 남긴 ㉠의 '괴상한 수열'은 자연물에 황금비를 부여한다는 피보나치 수열의 숫자 순서를 바꾸어 놓은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관장은 그 괴상한 수열과 더불어 이름에서 철자의 자리를 바꾸어 놓은 암호도 남겼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이렇게 볼 때, 죽임을 당하기 전에 박물관장이 괴상한 수열을 남긴 이유는 '자신이 남긴 암호를 해독할 수 있는 실마리를 주기 위하여(④)'라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18. 글쓴이의 표현 의도 파악 정답 ②

고대 그리스의 시인 리코프론은 애너그램을 최초로 사용한 사람인데, 당시 지배자의 이름인 프톨레마이오스의 철자를 바꾸어 '꿀로 된'이라는 어구를 만들어 냈다. 그런데 이에 대해 글쓴이는 ㉡에서, '하지만 프톨레마이오스가 과연 꿀처럼 달콤했던 왕이었을까?'처럼 설의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결국 글쓴이는 프톨레마이오스가 꿀처럼 달콤했던 왕이 아니었다는 점을 전제하고, 그런데도 그 이름으로 '꿀로 된'이라는 어구를 만들어 냈음을 지적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글쓴이가 ㉡처럼 표현한 의도는, 최초의 애너그램이 당대의 지배자에게 아부하는 용도로 이용되었다는 차원(②)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19. 정보의 이해와 구체적 적용 정답 ②

㉢의 '시어의 특성'은, 바로 앞의 '일상 언어의 질서를 거부하는 애너그램을 특성'과 관련하여 접근해야 한다. 앞문단에는, 애너그램은 염주알을 꿰듯이 철자를 순차적으로 읽어야 하는 선조성의 원리를 정면으로 거스른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에서 언급한 '시어의 특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은, 언어적 요소들의 통상적인 배열을 바꾸면서 그 잠재적 의미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나)라고 할 수 있다.

⑤ (마)의 '한쪽에 죽은 바다를 들고 있었다.'의 경우,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과는 맞지 않는 내용이므로 시적 표현에 해당한다. 그런데 ㉢에서 언급한 '시어의 특성'은 시적 표현이 아니라 순차적 질서를 거스르는 애너그램의 특성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성격이 약간 다른 것이다.

[20~23] 지문 해제

임금으로서 지녀야 할 마음 자세

내사(內史) 과(過)가 진의 제후 임명식에서 느낀 바를 바탕으로, 양왕에게 한 나라의 임금으로서 지녀야 할 올바른 마음 자세에 대해 말한 내용이다.

내사는 양왕에게 선왕의 예를 들면서, 임금은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하고, 올바르게 헤아리고 사물의 법도에 맞게 백성들을 가르쳐야 하며, 백성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올바른 정치를 세워 시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20. 글의 핵심 내용 파악 정답 ②

위의 '지문 해제'에서도 밝혔듯이, 이 글은 내사(內史) 과(過)가 진의 제후 임명식에서 느낀 바를 바탕으로, 양왕에게 한 나라의 임금으로서 지녀야 할 올바른 마음 자세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다. 따라서 이 글의 핵심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②의 '위정자의 기본 자세'이다.

21. 정보의 이해를 통한 이유 추론 정답 ⑤

내사(內史) 과(過)가 제후 임명식을 다녀와서 양왕에게 '그 제후에게는 후손이 없을 것'이라고 말한 이유는 앞부분의 상황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한다. 앞에서 '진후(진의 제후로 임명된 혜공)는 홀을 낮게 들고서 내사에게 배수(拜首 : 서서 절하는 예법)만 하고 계수(稽首 : 머리를 땅에 닿게 조아리는 예법)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즉, 제후 임명식을 거행하는 상황에서 혜공은 내사에게 온전한 예를 갖추지 않은 것이다. 내사는 양왕의 명을 받아 파견된 특사에 해당하므로, 제후로 임명되는 사람(혜공)이 그 특사에게 예를 갖추지 않은 것은 결국 양왕에게 예를 갖추지 않은 것이 된다. 따라서 내사 과가 돌아와서 양왕에게 밑줄 친 부분과 같이 말한 이유는 ⑤의 '혜공이 양왕에 대해 예를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라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22. 문맥에 따른 어휘의 쓰임 이해 정답 ③

'탓'은 '일이 그릇된 원인, 잘못된 까닭'이라는 뜻을 지닌 말로, 잘못된 것을 원망하는 경우나 핑계 또는 구실로 삼는 경우, 즉 부정적인 상황에 쓰이는 말이다. 문맥으로 볼 때 ⓐ, ⓑ, ⓓ, ⓔ는 모두 부정적인 상황과 연결될 수 있으므로 그 쓰임이 적절하다. 그러나 ⓒ의 경우는 앞의 '나라가 잘 되면 ~'이라는 내용으로 볼 때 긍정적인 상황에 해당하므로, 여기에 '탓'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3. 정보의 분석적 이해와 적용 정답 ①

'안팎으로 한 약속을 어기고 충신을 학살하고 있으니'라는 내용을 감안할 때, 첫 번째의 (　　) 안에 들어갈 말은 '신(信)'

이다. 본문에서 '신(信)'을 '백성들이 믿고 따르도록 시행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　　)의 경우, '법도'라는 말이 나오므로 '예(禮)'라는 말이 들어가야 한다. 본문에서 '예(禮)'를 '사물의 법도' 차원에서 언급하고 있다. 마지막 세 번째 (　　)의 앞에는 '자기가 싫어하는 것을 헤아리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행하니'라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여기에는 '충(忠)'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한다. 본문에서 '충(忠)'을 '올바르고 마땅하게 헤아리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따라서 본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접근할 때, (　　) 안에 들어갈 말이 순서대로 바르게 제시된 것은 ①의 '신-예-충'이다.

[24~28]　　해제

(가) 한국적 고유 정서인 한(恨)

한국의 고유 정서인 한(恨)의 기점이 되는 원(怨)과 탄(嘆)은 체념의 정서를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체념의 정서는 부정적 측면도 있지만, 그것이 달관의 경지로 나아가면 관조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리고 한국적 한(恨)에서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 것은 '정(情)으로서의 한'과 '원(願)으로서의 한'이다.

(나) 한국 민요에 담긴 해학성

한국의 민요가 겉으로 보기에 슬프지만, 슬픔과 함께 해학을 지니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민요에서의 해학은 향유자들이 슬픔에 빠지지 않도록 차단하는 구실을 한다고 밝히고 있다.

(다) 민요

노래의 저변에는 한스러운 정서가 바탕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 한스러움 자체에 매몰되지 않고 해학을 통해 그 한을 극복하려는 면모가 드러나 있다.

(라) 민요

화자인 농부가 팔자 좋은 사람과 대비하여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는 노래라고 할 수 있다.

24. 논점의 분석적 이해　　정답 ④

(가)에서 한(恨)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 언급하기는 했지만, 그것을 지양해야 한다는 관점은 드러나 있지 않다. 그리고 (나)에서 민요에 담긴 해학의 요소와 그 기능(향유자들이 슬픔에 빠지지 않도록 차단)에 대해 언급하기는 했지만, 그 전통의 계승 문제에 대해 강조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④는 (가)와 (나)의 논점을 제대로 파악한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

① (가)에서는 한국의 고유한 정서로서의 한(恨)에 대해 살피고 있고, (나)에서는 민요에 담긴 해학에 대해 다루고 있다.

② (가)의 둘째 문단에서 한국적 한의 또 다른 내포인 '밝음'의 측면(긍정적 측면)을 중요하게 보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나)에서는 민요에 대해 언급하면서, 민요는 겉으로 보아서는 슬프지만 슬픔과 함께 해학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어서 민요에서의 해학은 향유자들이 슬픔에 빠지지 않도록 차단하는 구실을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결국 (나)에서는 비애나 한을 부정적인 측면으로 전제한 뒤 해학의 기능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③ (가)에서는 한을 한국의 고유한 정서, 즉 한국 문화의 원류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나)의 경우는 '오히려 비애 또는 한을 대량으로 지니고 있는 것은 일부의 현대시와 일제하의 유행가'라고 밝히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한을 시대에 따른 현상으로 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⑤ (가)의 둘째 문단에서, 한국적 한이 지닌 내포를 '정(情)으로서의 한'과 '원(願)으로서의 한'으로 분류하고 있다. (나)에서는 겉으로 슬프게 보이는 민요를 중심으로 그 속에 담긴 해학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5. 정보의 이해를 통한 구체적 예의 적용　　정답 ②

(가)에서는 ㉡의 '탄(嘆)'에 대해 '무력한 자아를 되돌아보고 자책하고 한탄하는 내향적 공격성'의 측면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②에 제시된 예는 무력한 자아를 되돌아보면서 자책하는 내용이 아니라, 농부들이 춘향의 한에 대하여 연민을 느끼는 내용이므로 ㉡의 예로 적절하지 않다.

① '매질에 이 몸 죽으면' 귀신이 되어서 그 한을 풀겠다는 내용이므로, 상대방에 대하여 외향적 공격성을 보이는 예로 볼 수 있다.

③ '제비'와 '흥부'의 이별 상황을 통해 세계와 대상에 대한 연민, 서로 공감하는 풍부한 감수성을 엿볼 수 있다.

④ 결핍의 상황(앞을 보지 못함)으로 인한 한이 간절한 소원으로 연결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⑤ 도복을 보관할 장이 없어 '닭의장'에 보관하는 가난한 처지인데도 해학적인 면모를 엿볼 수 있다.

26. 정보를 통한 작품의 분석적 이해　　정답 ⑤

(다)는 민요에 해당하는데, '문고리 잡고는 벌벌 떠네', '홀아비 살림에 말도 많다', '홍두깨 방망이로 다 나간다' 등에서 해학적인 면모를 엿볼 수 있다. (나)의 설명을 바탕으로 접근할 때, 해학적인 요소의 개입으로 인해 향유자들이 슬픔에 빠지는 것을 차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라)의 노래는 화자가 농부라고 할 수 있는데('우리 농부'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음), 화자는 '팔자 좋은 사람'과 대비되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있다. 즉, 무력한 자아를 되돌아보면서 자책하고 한탄하는 내향적 공격성을 보이는 탄(嘆)의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

27. 정보 및 작품의 분위기를 통한 시구 이해　　정답 ①

(다)의 제2연에서 화자는 '청천 하늘에 별도 많고 / 홀아비 살림에 말도 많다'고 노래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화자의

삶이나 처지가 행복하기보다는 고단하다는 점을 엿볼 수 있다. 그런데 후렴에 해당하는 ㉤에서 '아리랑 고개다 놀고 가세'라는 식으로 노래하고 있다. 이는 아리랑 고개에서 놀 정도로 삶이 여유롭다는 것이 아니라, 고단한 삶이나 고난의 상황을 극복하려는 차원에서 그것을 반어적으로 표현한 것(①)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28. 의미와 유사한 속담 이해 정답 ②

(다)의 상황을 감안할 때, ㉠에는 문경 새재의 박달나무는 재질이 좋기 때문에 애매하게 베어져서 홍두깨 방망이로 다나간다는 인식이 담겨 있다. 이와 유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은 ②의 '말 깨나 하는 놈 재판소 간다.'이다.

① 활동 무대가 커야 통이 큰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더욱 클 수 있다는 말
③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잠을 자는 것조차 탐탁하게 여기지 않을 정도로 시집살이가 어려움을 이르는 말

[29~32] 지문 해제

법에 대한 합의 이론과 갈등 이론

합의 이론은 사회 규범과 도덕 규범에 대한 전반적 합의와 사회의 모든 요소들과 관련된 공통적 이해관계를 언급함으로써 법의 내용과 운용을 설명한다. 반면 갈등 이론은 법과 형사 사법 체계가 사회에서 가장 힘 있는 집단의 이해관계와 규범을 구체화시킨다고 주장한다.

한편 경험적 연구는 다원적 갈등 이론을 뒷받침하는 경향이 있는데, 핵심적 법 규범에 대해서는 합의가 있지만, 입법과 법의 집행에서는 경쟁적 이익 집단들 사이에 갈등이 있다고 본다. 갈등 이론은 형사 사법 체계의 운용이나 범죄 행위에 관한 설명으로서보다는 법 제정에 관한 설명으로서 더 큰 경험적 지지를 받는다.

29. 정보의 이해 및 분석을 통한 적용 정답 ⑤

⑤의 '합의된 규범과 사회 가치, 사회 체계의 질서정연한 균형, 사회 통합이라는 법의 궁극적 기능을 강조하는 기능주의'는 합의 이론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극단적 갈등 이론의 측면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첫째 문단에서 합의 이론에 대해 설명하면서, '사회 규범과 도덕 규범에 대한 전반적 합의와 사회의 모든 요소들과 관련된 공통적 이해관계를 언급함으로써 법의 내용과 운용을 설명한다.'고 밝히고 있다.

① '갈등 이론은 범죄를 문화적 갈등이나 집단 갈등 속에 휩쓸린 개인의 행동으로 설명한다.'는 내용과 연결된다.
②, ④ 둘째 문단에서 다원적 갈등 이론에 대해 언급한 '입법과 법의 집행에서는 경쟁적 이익 집단들 사이에 갈등이 있다는 것'이라는 내용과 연결된다.
③ 첫째 문단에서 설명한 갈등 이론의 내용과 연결된다.

30. 견해에 대한 이해의 적절성 판단 정답 ⑤

첫째 문단에서 '합의 이론은 사회 규범과 도덕 규범에 대한 전반적 합의와 사회의 모든 요소들과 관련된 공통적 이해관계를 언급함으로써 법의 내용과 운용을 설명한다.'과 밝히고 있다. ⑤의 '어떤 행위는 범죄로 정의되지만 어떤 행위는 왜 범죄로 보지 않는가'를 묻는 것은 사회 규범과 도덕 규범에 대한 전반적 합의가 아니라는 점에서 '합의 이론'의 관점과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다.

31. 정보의 이해와 구체적 적용 정답 ①

넷째 문단에서 갈등 이론은 '정치적 혹은 이데올로기적 동기로 인한 범죄'는 갈등 이론과 잘 맞는 경향이 있지만, '청소년 비행이나 살인, 절도, 방화, 화이트칼라 범죄, 조직 범죄' 등의 경우는 설명력을 갖지 못한다고 밝히고 있다. ①의 경우는 청소년 비행에 해당하는 사례이므로 '갈등 이론'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②, ④ '정치적 혹은 이데올로기적 동기로 인한 범죄'와 관련된다.
③ '갈등 이론은 범죄를 문화적 갈등이나 집단 갈등 속에 휩쓸린 개인의 행동으로 설명한다.'고 밝히고 있다.
⑤ 첫째 문단의 후반부에서 갈등 이론에 대해 설명한 '법은 사회에서 힘없는 집단을 부당하게 낙인찍고 처벌하는 형사 사법 체계에 의해 집행되는 것으로 주장한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32. 정보의 분석적 이해를 통한 도식화 정답 ③

합의 이론에서는 법의 내용과 운용을 설명할 때 사회 규범과 도덕 규범에 대한 전반적 합의 및 사회의 모든 요소들과 관련된 공통적 이해관계에 주목하는 반면, 갈등 이론에서는 법과 형사 사법 체계가 사회에서 힘 있는 집단의 이해관계와 규범을 구체화시킨다고 주장한다고 설명했다.

다원적 갈등 이론에 대한 언급은 둘째 문단에 제시되어 있는데, 핵심적 법 규범에 대해서는 합의가 있지만, 입법과 법의 집행에서는 경쟁적 이익 집단들 사이에 갈등이 있다고 본다. 이렇게 볼 때, 다원적 갈등 이론에서는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상황에 따른 합의와 갈등의 양상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세 이론의 관계를 가장 적절하게 나타낸 것은 ③이다.

[33~36] 지문 해제

생명체의 생명 현상에서의 항상성과 불규칙성

심장의 역할에 대해 언급하면서, 생명체의 생명 현상에서의 항상성과 불규칙성의 문제에 대해 다룬 글이다. 의학자들을 생명체의 생명 현상을 항상성의 개념으로 설명해 왔다. 건강한 생명체란 질서와 균형을 통해 정적인 평형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근래의 물리학자들은, 생명체는 질서 정연한 방식으로 규칙적인 운동을 수행하는 정적인 시스템이 아니라, 불규칙적이지만 유연하고 역동적인 상태를 통해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역동적인 시스템으로 본다.

33. 정보의 이해와 확인 정답 ⑤

마지막 문단에서 '물리학자들이 최근에 밝혀 낸 심장 박동의 운동은 질병에 대한 의학자들의 고정관념을 흔들어 놓았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연구를 통해서 생명체의 운동에 관한 또 다른 인식을 하게 되었다.'는 ⑤는 본문의 내용과 부합한다.

①, ③ 마지막 문단에서, 건강한 사람은 생명 관련 운동이 불규칙적이고 유연하고 역동적이며, 질병에 걸리거나 노쇠한 사람은 그것이 일정하고 규칙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② 주기 조정자는 오른쪽 심방 벽에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④ 물리학자들의 연구는 생명체의 생명 현상과 관련된 의학자들의 고정관념을 흔들어 놓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34. 단어들의 의미 관계 이해 정답 ③

'수축'은 '줄거나 오그라듦'이라는 뜻이고, '이완'은 '(근육 따위가 느즈러짐'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수축'과 '이완'은 서로 반의 관계에 해당하는 단어들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반의 관계에 해당하는 것은 ③의 '압축 : 복원'이다. '압축'은 '기체나 물체 따위에 압력을 가하여 부피를 작게 함'이라는 뜻이고, '복원'은 '원래대로 회복함'이라는 뜻이다.

① '사슴'은 '동물'에 속하는 개념이므로, 이 두 단어는 포함 관계(하의 관계)에 해당한다.

④ '은총'은 '높은 사람에게서 받는 특별한 사랑'이라는 뜻이고, '총애'는 '남달리 귀여워하고 사랑함'이라는 뜻이므로, 이 두 단어는 유의 관계에 해당한다.

⑤ '축소'는 '줄여서 작게 함'이라는 뜻이고, '해이'는 '(마음이나 규율이) 풀리어 느즈러짐'이라는 뜻이다.

35. 정보의 분석적 이해 정답 ①

질병에 대한 의학자들의 '고정관념'은 생명체의 생명 현상을 항상성의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건강한 생명체란 질서와 균형을 통해 정적인 평형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라는 생각이다. 그리고 의학자들은 '질서를 잃는 것'을 질병이라고 한다는 정보도 제시되어 있다. 이렇게 볼 때, ㉡의 '고정관념'을 반영하고 있는 내용끼리 묶인 것은 ①의 ⓐ와 ⓑ이다.

36. 비판적 의문의 적절성 판단 정답 ②

물리학자들은 건강한 생명체를 불규칙적이고 유연하며 역동적인 시스템으로 본다. 건강한 생명체를 규칙적이라고 보는 것은 의학자들의 입장이므로 ②는 본문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① 주기 조정자에서 방출하는 전기파로 인해 심장의 근육들은 하나의 박자에 맞춰 수축과 이완을 반복함으로써 펌프질을 하게 된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⑤ 셋째 문단에서, 심장 발작 순간에 전기 충격파를 발생시킴으로써 그로 인한 급사를 95% 이상 막을 수 있다고만 언급하고, 그 구체적 근거에 대해서는 해명하지 않았으므로 비판적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37~40] 지문 해제

(가) 문정희, 『딸의 소식』

호동 왕자와 낙랑 공주의 설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이다. 호동에 대한 운명적인 사랑 때문에 스스로 아버지의 나라를 찢어야 했던 마음이 잘 드러나 있다.

(나) 지귀 설화를 배경으로 한 작품

미천한 신분의 지귀의 열정적이고도 순수한 사랑의 마음과 고뇌, 그리고 그것을 이해해 주는 선덕여왕의 넉넉한 품성을 엿볼 수 있는 지귀 설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작품이다. 운율상 시조의 율격을 보여 주고 있다.

(다) 조예린, 『심청이 마음』

동냥젖을 얻어서 먹여 가며 자신(심청)을 키워 준 봉사 아버지에 대한 은혜의 마음을 담고 있는 작품이다.

(라) 노천명, 『남사당』

이 시의 화자는 남자인데, '날라리를 부는 저녁이면 / 다홍치마를 두르고 나는 향단이가 된다.'고 노래하고 있다. 즉, 남사당 놀이판에서 여자(향단)의 배역을 맡아 연기해야 하는 자신을 서글프게 느껴 '내 남성이 십분 굴욕되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

(마) 강계순, 『구운몽 5 - 겨울』

성진이라는 불제자가 꿈에서 온갖 부귀영화를 맛보고 깨어난 후, 인간의 부귀영화는 일장춘몽에 불과하다는 깨달음을 얻고 불계에 귀의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김만중의 소설 『구운몽』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다.

37. 작품의 개괄적 이해와 감상 정답 ④

(라)는 떠돌이 생활을 하는 남사당의 일원인 남자 화자가 놀이판에서 여자(향단)의 역할을 하면서 느끼는 서글픈 정서가 드러나 있다. 따라서 (라)를 사랑의 감정을 노래한 작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④는 적절하지 않다.

① (가)는 호동 왕자와 낙랑 공주 설화, (나)는 지귀 설화, (다)는 효녀 심청 이야기, (라)는 전통적인 남사당패, (마)는 구운몽』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작품이다.

② (가)의 화자는 낙랑 공주, (다)의 화자는 심청으로 나타나 있으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③ (나)는 각 연이 3(4)·4조의 율격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제3연(시조의 종장에 해당)의 첫 번째 시구가 3글자로 되어 있다. 따라서 (나)는 배행은 다르지만 시조의 율격을 보여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⑤ (다)의 시적 화자는 '정녕 내 정녕 / 어이 잊을진가'라고 노래하고 있는데, 이는 결코 잊을 수 없다는 주관적 감정을 드러낸 표현이라 할 수 있다.

38. 분석적 이해 정답 ④

(라)의 '향단이'는 남사당의 일원인 남자 화자가 다홍치마를 두르고 그 역할을 해야 하는 배역이므로 ④의 분석은 적절하지 않다. 그렇게 때문에 시적 화자는 '내 남성이 십분 굴욕되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

② (나)의 '봉두난발'은 쑥대머리로 더부룩하게 엉클어진 머리털을 뜻하는 말로, 미천한 신분의 지귀와 연결되는 시어이다. '황금팔찌'는 여왕과 연결되는 시어이므로, '봉두난발'과 '황금팔찌'는 신분적 차이를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⑤ (마)를 구운몽』의 내용과 관련지어 접근해 보면, '허망한 꿈'은 세속적 성공의 허망함을, '한 줄기 빛'은 그것에 대한 깨달음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39. 시적 공간이 지닌 성격 변별 정답 ⑤

㉠~㉣은 모두 현실적 세계의 공간이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공통점으로 추출할 수 있다. 그러나 ㉤의 '서방정토'는 불교에서 극락 세계를 이르는 말이므로, 현실적 공간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 성격이 다르다.

40. 자료의 이해와 구체적 적용 정답 ⑤

제시된 자료는 김만중이 지은 소설인 『구운몽』의 한 장면이다. 이 소설은 온갖 부귀영화도 한 순간의 꿈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고 불도에 귀의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작품은 (마)이다.

[41~44] 지문 해제

> **작자 미상, 『유충렬전』**
> 영웅의 일대기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영웅 소설로, 충신과 간신의 갈등 양상을 통해 윤리적 당위라 할 수 있는 충(忠)이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고전 소설이다. 제시된 부분을 보면, 토번과 가달의 정벌을 둘러싸고 한담과 일구는 정벌을 주장하고, 유심은 처한 상황을 들어 기병하지 말 것을 주장하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이에 천자는 간신 한담과 일구의 말에 현혹되어 충신 유심을 귀양 보내는 방향으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41. 내용의 분석적 이해 정답 ①

한담과 일구는 천자에게 토번과 가달을 정벌하기 위해 기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유심은 적들의 힘이 우리보다 강성한 상황이니 기병하지 말 것을 주장한다. 이렇게 상반된 의견을 주장하는 상황인데, 천자는 그 주장의 근거나 사리를 따져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담과 일구의 말에 현혹되어 성급한 판단(기병을 허락함)을 내리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천자는 입장을 달리하는 신하들의 의견을 모두 존중하기보다는 한쪽으로 치우쳐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①은 작품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② '유심은 선황제 개국 공신 유기의 손이라'라는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③, ④ 한담과 일구는 토번과 가달이 강포만 믿고 천명을 거스른다고 말하면서 기병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 유심은 아국의 현실적 힘이 상대적으로 미약함을 들어 기병하지 말 것을 주장하고 있다.

⑤ 유심은 아국의 힘이 열세인 점을 들어 기병하지 말 것을 주장했는데, 한담과 일구는 대국을 저버리고 도적놈만 칭찬한다는 식으로 확대하고 있으므로 견강부회의 성격이 짙다고 할 수 있다. '견강부회(牽强附會)'는 '가당치도 않은 말을 억지로 끌어다 대어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함'이라는 뜻이다.

42. 인물의 심적 상태 이해와 적용 정답 ③

한담과 일구는 사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왕에게 바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공명에 혈안이 되어 나라를 혼란에 빠지게 할 수 있는 인물들이다. 이에 유심은 현실 상황을 감안하여 왕에게 충간을 했는데, 도리어 한담과 일구의 선동으로 귀양을 가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러한 유심의 심적 상태는, 바른 도리에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고 싸움만 일삼는 세태에 대한 근심을 드러낸 ③과 유사할 것이다.

① 임금의 죽음을 슬퍼하는 마음
② 계유정난으로 인한 충신의 희생을 한탄하는 마음
④ 생에 대한 운명적 체념
⑤ 자신과 뜻을 함께 하여 편하게 살아가자는 회유

43. 의미에 적절한 속담의 적용 정답 ③

㉠은 새알은 천근이나 되는 무게를 감당할 수 없다는 의미로, 아국의 힘이 미약하여 토번과 가달의 강성함을 이기기 어렵다는 뜻으로 한 말이다. 이러한 의미와 가장 유사한 것은 '당해 낼 수 없는 약한 것으로 큰 것을 막으려 하는 어리석음'을 이르는 말인 ③이다.

① (북한 속담) 공연히 분해하는 사람에게 '거미줄에 목을 매고 죽으라'고 놀림조로 하는 말
② 뜻밖에 큰 걱정거리가 닥쳐 매우 위급하게 된 상황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④ 모든 일을 언제나 조심성 있게 해야 함을 이르는 말
⑤ 작은 결점이라 하여 등한히 하면 그것이 점점 더 커져서 나중에는 큰 결함을 가져오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44. 문맥적 의미의 유사성 파악 정답 ④

㉡의 '춘추'는 글자 그대로 '봄과 가을'의 의미로 쓰인 말이다. '춘추'가 이러한 의미로 사용된 예문은 ④이다.

① '해[年]'를 문어적으로 이르는 말
② 중국 노나라 사관이 편년체로 기록한 노나라의 역사를 공자가 수정·보완한 책의 이름

③ '나이'의 높임말. 연세
⑤ 중국 역사상의 '춘추' 시대를 이르는 말

[45~50] 해제

(가) 박인로, 『누항사(陋巷詞)』

작가가 말년에 정계에서 물러나 고향으로 돌아와 생활하던 중의 곤궁한 생활상과 안분지족(安分知足)의 삶을 구체적으로 노래한 가사 작품이다. 가난한 살림살이로 어렵게 생활하는 가운데에도, 그것을 원망하기보다는 인간의 도리를 지키려 하는 태도를 엿볼 수 있다.

(나) 채만식, 『레디메이드 인생』

제목인 '레디메이드 인생'은 '기성품 인생'이라는 의미로, 어디엔가 팔리기를 기다리는 기성품처럼 직업을 기다리는 실업자를 가리킨다. 이 작품은 사회주의의 실천적 지식인이 되고자 했으나, 실직 상태에 있는 P의 삶을 통하여 식민지 지식인의 좌절을 풍자적이고 냉소적인 시선으로 그리고 있는 소설이다.

45. 작품의 공통점 파악 정답 ③

(가)의 화자는 생활이 무척 가난한 상황인데도 원망의 태도를 보이기보다는 인간의 도리를 지키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나)의 P는 방세와 전기세를 못 낼 정도로 가난한 상황에서, 공부를 해 봐야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여 어린 자식을 인쇄소에 맡기어 기술을 가르치려 하고 있다. 즉, (가)의 화자와 (나)의 P는 살림살이가 매우 가난한 상황에서 각자 자기의 삶의 방식을 택하고 있으므로, (가)와 (나)에 대한 공통된 설명으로는 ③이 가장 적절하다.

46. 화자가 지닌 삶의 태도 이해 정답 ③

(가)의 화자는 누추하고 궁벽한 곳에 초막을 짓고 곤궁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가난을 원망하지 않고 인간적인 도리를 지키며 살아가고자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화자의 삶의 태도와 거리가 먼 것은 ㉢의 '온포(溫飽)'이다. 화자는 '평생 한 뜻이 온포(溫飽)에는 업더라'라고 노래하고 있는데, '온포(溫飽)'는 '(옷을 따뜻하게 입고 음식을 배불리 먹는다는 뜻으로) 생활에 아쉬움이 없이 넉넉함'을 이르는 말이다.
① ㉠ : 가난하지만 원망을 하지 않음.
② ㉡ : (도시락밥과 표주박의 물이라는 뜻으로) 변변찮은 음식, 혹은 청빈한 생활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

47. 상황에 어울리는 한자 성어의 적용 정답 ④

사건의 전개 양상을 감안할 때, ㉤은 값싼 담배('마꼬')를 내어 놓는 가게 주인에 대해 P가 심술이 나서 허세를 부린 행동이라 할 수 있다. 즉, P는 가게 주인이 자기의 초라한 행색을 보고 일방적으로 값싼 담배를 내어 놓는다고 생각하여, 심술이 나서 일부러 큰돈으로 꺼내면서 비싼 담배('해태')를 주문한 것이다. P는 방세와 전기세가 밀려 있는 곤궁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의 상황을 표현할 수 있는 한자 성어로 가장 적적한 것은 ④의 '허장성세(虛張聲勢)'이다. 이는 '실속은 없으면서 허세로 떠벌림'을 이르는 말이다.
① 남의 비위를 맞추는 달콤한 말과 이로운 조건만을 들어 그럴듯하게 꾸미는 말
② 막다른 데에 이르러 더는 어찌할 수 없게 된 판
③ 눈앞에 보이는 차이만 알고 결과가 같은 것을 모르는 어리석음을 이르는 말. 간사한 꾀로 남을 속이고 농락하는 것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
⑤ (여우가 범의 위세를 빌려 호기를 부린다는 뜻으로) 남의 권세에 의지하여 위세를 부림을 이르는 말

48. 사건의 양상 이해를 통한 상황의 추론 정답 ①

앞부분에서 P는 "내가 학교 공부를 해 본 나머지 그게 못 쓰겠으니까 자식은 딴 공부 시키겠다는 것이지요."라고 말하고 있다. 즉, P는 학교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직을 못하여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이기 때문에, 아들은 학교 대신 인쇄소에 보내어 기술을 배우게 한 것이다. 그리고 P는 인쇄소를 나오면서 당부와 치하를 하고 있으므로, 빈칸에 이어질 P의 심리 상태로는 짐을 벗어 놓은 것 같은 가뜬함이나 느긋함(①)이 가장 적절할 것이다.

49. 말하기 방식의 이해 정답 ③

보통학교도 마치지 않은 어린 자식을 왜 공장에 보내느냐는 A의 말에, P는 "내가 학교 공부를 해 본 나머지 그게 못 쓰겠으니까 자식은 딴 공부 시키겠다는 것이지요."라고 답하고 있다. 따라서 P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는 ③이 적절한 설명이다.

50. 인물의 성격 이해와 적용 정답 ④

<보기>에는 홍부 부부가 온갖 고생과 노력을 다하여도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가난한 생활상이 드러나 있다. (가)의 화자는 가난한 생활을 하면서도 원망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나)의 주인공 P는 학교 공부가 생활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여 어린 자식을 인쇄소에 보내고 있다.

이러한 태도를 감안할 때, (가)의 화자는 <보기>의 홍부 부부에게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의 P의 경우는 공부가 생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취지의 말끼리 짝지어진 것은 ④이다.